

로벤 포드의 기타연주법 분석 - Cannonball Shuffle을 중심으로 -

이창규*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yi3434@hanmail.net

e-mail:entheos@chungwoon.ac.kr

An analysis on the Robben Ford's play style - Focused on Cannonball Shuffle -

Chang-Kyu Yi* , Tae-Seon Cho**

*Choo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로벤포드(Robben Ford)는 최고의 블루스 기타리스트로써 미국의 블루스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중 하나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연주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블루스, 재즈 기타리스트로 기억되어 왔다. 그의 앨범 중 'Keep on runing'의 삽입곡 <Cannonball shuffle>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블루스 곡에 가장 근접한 셔플블루스 이다. 하지만 곡 안의 반전과 기존 기성곡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며 그 안에서 로벤포드가 사용한 리듬과 멜로디 프레이즈, 솔로 스케일을 분석하였을 때, 현대의 어느 블루스곡과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뒤쳐지지 않을 곡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로벤포드의 앨범 'Keep on runing'의 삽입곡 <Cannonball shuffle>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오길 고대 한다.

1. 서 론

블루스(Blues)는 흑인음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흑인 노예시절 고향에서 먼 타지로 팔려온 흑인 노예들은 강제적으로 고된 노역을 하게 되었다. 그때, 노동요로 블루스가 시작되어진다. 초기의 블루스는 고된 노역을 하면 소리를 질러대는 필드 할러(Field holler), 서로 주고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뜻의 콜 앤 리스펀스(call and response)의 형식을 거치면 점점 발전해 나갔고, 19세기 말에 혼자서 기타나 하모니카를 연주하면 노래하는 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19세기 초에 어쿠스틱 기타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델타 블루스를 시작으로 1930년대에는 렉타임과 부기우기가 등장하면서 점프 블루스가 그리고 1940년대에 일렉트릭 기타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연주하는 어반 블루스, 또는 시카고 블루스가 나타나게 된다.

이 시카고 블루스의 등장으로 블루스 장르에서 일렉 기타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카고 블루스의 계보를 잇는 기타리스트 로벤 포드가 등장하게 된다. 로벤 포드는 조니 미첼, 마일스 데이비스, 조시 해리슨, 밥 딜런, 존 스코필드 등 당대의 많은 뮤지션들과 협업하고 그래미상 후보에 다섯 번이나 지명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의 앨범중 2003년 앨범인 'Keep on running'의 삽입곡 <Cannonball shuffle>을 연구하여 그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로벤 포드의 <Cannonball shuffle>은 곡의 제목부터 표기 되어 있듯이 셔플리듬의 블루스 연주곡이

다. 곡의 구성은 Intro - A - A' - B - A - Sax solo - Guitar solo - B' - A'' - Outro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 1] A파트 악보[1]

A파트는 총 12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블루스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진행인 I7이 4마디 나오고 그다음 IV7이 2마디 나온 다음 다시 I7이 2마디가 나오고, 마지막에 V7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코드진행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를 각 마디씩 표기하면 A7 - A7 - A7 - A7 - D7 - D7 - A7 - A7 - E7 - D7 - A7 - E7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속 셔플리듬이 이어지고 백킹 기타의 보이싱은 코드의 1도와 5도만을 잡은 일명 파워코드를 잡은 후 5도음을 6도음과 같이 번갈아가면서 두 번씩 연주하고 있다. 셔플리듬 블루스의 가장 정석이라 할 수 있는 백킹 연주이다. 여기에 멜로디는 A, G, E음을 사용하였는데 이 음들은 모두 A7코드의 구성음, 즉 코드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멜로디 또한 코드진행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음들을 사용하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멜로디의 진행 방식이 모티프, 반복, 발전, 변형의 단계를 12마디의 첫 A파트 안에서 아주 잘 표현해 내고 있다.

두 번째인 A'파트는 A파트의 반복이라 봐도 무방하다. 중간 중간에 처음과는 다른 멜로디 음이 있지만, 이 음들이 곡의 진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기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악보 2] B파트 악보[1]

B파트에서는 곡에 큰 변화를 주는 부분이다. 곡 구성에서 브릿지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셔플리듬은 살아 있지만 드럼의 다이내믹을 완전히 낮춰서 킥과 스네어보다는 하이햇과 림샷으로 연주하여 분위기에 큰 변화를 주고 있

다. 코드 진행 또한 다르게 풀어지고 있다. 백킹 기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리듬 백킹이 아닌 리프 중심의 연주를 하고 있다.

각 리프의 구성음들을 살펴 보면, D7 코드에서는 D, C, A의 음을 사용하고 있고 Am/C코드에서는 C, D, A의 음을 B7과 E7에서는 B음을 사용하여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D7에서의 D, C, A의 음은 각각 코드의 1도, 단7도, 5도의 음으로 매우 잘 어울리는 음들이며, Am/C코드에서의 C, D, A는 각각 근음, sus4, 1도음이며 이 또한 듣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각각의 코드에서의 사용되어진 음이 전부 C, D, A의 같은 음으로 구성되어진 점이다. 순서를 다르게 함으로써, 마디의 화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서 연주 하고 있다.

B7과 E7에서는 1도이고 5도인 B음을 사용하여 드럼 섹션과 맞춰서 함께 연주 하고 있다. 멜로디는 D7코드가 진행되는 4마디에서는 C, A, D, E 음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D7 - Am/C - B7 - E7으로 코드가 진행되는 4마디에서는 각각 나누어 보았을 때, D7에서는 D, C, A, G음을 사용하였고, Am/C에서는 C, A, D, E를 B7에서는 C#, D, A, C음을 사용 하였으며, E7에서는 Eb, D, C, E음을 사용하였다. 그중 특별히 들오오는 음들은 B7에서의 C, C#, D음과 E7에서의 Eb음이다. 먼저, B7코드의 경우를 보면 b9, 9, #9음을 알 수 있고 7th코드는 굉장히 불안정한 화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이 가능한 음들임을 알 수 있다. E7코드에서 Eb음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음이지만, 이를 D음에서 D음으로 가는 사이에 D - Eb - D로 사용하여 패싱 노트의 성질을 이용하여 충분히 좋은 멜로디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B파트에서는 곡 진행에 있어서 기본 프레이즈의 마디 변화, 리듬 섹션의 다이내믹 변화를 통하여 곡의 분위기에 큰 전환점을 주면서 이와 동시에 흔하게 흘러가는 셔플 블루스에서 이목을 끌 수 있는 한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마디때에 드럼 필인을 통하여서 A'파트로 넘어가게 된다.



[악보 3] A'파트 악보[1]

A'파트는 언뜻 보면 A파트의 반복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A파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파트 마디의 개수이다. A파트는 12마디의 전형적인 블루스 패턴의 진행이었다면 A'파트는 중간에 D7과 A7코드를 생략한 8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의 진행은 A7 - A7 - A7 - A7 - E7 - D7 - A7 - E7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멜로디 또한 같이 변형하게 된다. 즉, A파트에서 12마디의 패턴이었던 멜로디가 5번째부터 8번째 마디까지의 멜로디가 생략이 되는 것이다. B파트 이후에 A'파트에 처음 나오는 멜로디가 A파트의 시작 멜로디와 비슷하고 A'파트의 마지막 멜로디 또한 A파트의 마지막 멜로디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A파트의 반복이라 할 수 있지만, 중간에 4마디의 생략은 반복 파트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프레이즈의 마디 구조의 변화는 그 전에 있었던 셔플 블루스의 곡에서는 자주 보이지 않았던 형태이기 때문이다. 곡의 분위기는 그대로지만 이를 통하여서 A - A' - B - A'의 형태를 잘 재현해 냈고 많은 고심을 한 것들이 잘 보여진다. A'파트 이후 Sax solo 두 코러스 후 Guitar solo 4코러스로 이어진다.



[악보 4] Guitar solo파트 부분 악보[1]

Guitar solo파트에서는 주로 사용되어지는 릿들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악보에서의 릿은 Aminor pentatonic scale에 blue note를 추가한 릿으로써 일명 A blues scale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처음과 두 번째 3연음 부분에서 음의 수서는 E - E - A인데 D음인 3번줄 7번 프렛에서 초킹 주법을 이용하여 E음을 낸 후 2번줄 5번 프렛을 연주하여 다시 E음을 한번 더 내주는 일렉기타만의 특성이 묻어나는 릿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각 solo파트 연주 이후 다시 B'파트로 돌아오고 8마디 연주 후에 A''파트를 12마디 연주하게 된다. 이때 B'파트와 A''파트는 기존의 A, B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Outro파트의 코드진행은 A파트의 마지막 4마디와 비슷하게 진행되어지고 멜로디 또한 그 부분분을 변형시킨 멜로디로 진행된다. 하지만 제일 뒤에 두마디에서는 리듬 섹션이 나오고 멜로디 또한 이에 맞춰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3. 결론

본 논문은 로벤 포드의 앨범 'Keep on running'의 삽입곡 <Cannonball shuffle>이라는 곡을 통하여 그의 연주 스타일과 멜로디연주 기법, 그리고 코드의 보이싱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보편적인 블루스 진행에서의 변화를 주는 기법을 찾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에 좋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좋은 음악들을 토대로 연구와 답습을 통해 후대의 많은 뮤지션들이 계속해서 좋은 음악 창작물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 [1] 「best of ROBBEN FORD」 HAL LEONARD 2008
- [2] <https://www.robberford.com/bio>
- [3] <https://www.naver.com/>